

# 20년 후의 군산시 모습은 어떨까?

### 시, 2040년 목표연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나서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 전환

군산시가 도시발전의 방향을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으로 전환한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고려한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2040년 목표연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초안 마련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 발전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중

합적인 계획이다.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동안의 확장적 개발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또 시정방집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바탕으로 원도심을 포함한 도심 안팎의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구한다

는 방침이다.  
시를 이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7월까지 4차에 걸쳐 도시 미래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2020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장성군, 첨단기계 활용 스마트농업 보급 나서 하반기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등...비용 절반 지원도

장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농업 기계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보급에 나선다.  
장성군은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50만 원가량인 드론 교육비의 50%, 최대 12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2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의 장성 거주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를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접수 완료 후 26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항공법규, 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원리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비행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습교육으로 이뤄진다.  
군은 또 농업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내년 초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소형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에는 계획 인원보다 훨씬 많은 160여명이 교육을 받아 면허증을 취득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정읍시,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완공

#### 21억원 투입 37면 규모 조성 방문객·주민에 개방 운영

정읍시는 최근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끝내고 상점가 방문객과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새암길 주차장은 수성동 575-5번지 일원의 부지 1173㎡에 21억 200만 원을 들여 총 37면의 규모로 조성됐다.  
새암길 상점가는 의료 관련 특화 거리로 100여 개의 의료·접합·푸드 등의 상점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상권침체와 인근 불법 주차차 차량들로 이용객과 상점 업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공영주차장 확보로 도로의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새암길 상점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상점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새암길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해 총 671면의 공영주차장 11곳을 조성하고 주차편의를 돕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소방서 아영·캠핑장 안전 캠페인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 소방대원이 캠핑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구조장비 사용 요령 등 아영·캠핑장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읍소방서 제공)

### 새만금 대표 축제 '노마드페스티벌' 개최

#### 15~18일 오토캠핑장 일원서 노라조 등 다양한 공연 준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새만금을 대표하는 축제인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은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나가는 축제이다.  
모든 참가자는 축제기간 동안 노마드 수칙을 준수하며, 노마드 캠핑, 아바타 만들기, 낭만편지 보내기, 휴머니싱 경연대회, 노마드 RPG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노마드 NMF(Newtro Music Festival)와 더위를 날려버리는 물의 제전, 노마드 끼 경연대회, 새만금 뮤직페스티벌, 불의 제전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인기그룹 '노라조'를 비롯해 밴드 '딕펍스', 걸그룹 'XOX', 팝페라그룹 '더 드림 싱어즈',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니표', 파이어퍼포밍팀 '플레이밍 파이어' 등이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참가접수는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 도담·해맑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상반기 보건복지부 '장기입차 전환사업' 최종 선정 시설 리모델링 비용·기자재비 등 최대 2억여원 지원

남원지역 도담어린이집 등 2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입차 전환사업'에 도담어린이집과 해맑은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양 민간어린이집은 전북도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장기입차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최종 결정됐다.  
그간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전국 평균 6.1%를 한참 밑도는 1% 수준으로 공보육에 공백이 컸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도내·외 벤치마킹을 비롯해 복지부의 현장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비

하는 등 준비했다. 그로 인해 최종 2곳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설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비, 근저당 설정비 등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기존 5만 원을 받던 보육교사의 장려수당이 근속에 따라 5만원과 7만원, 10만원까지 늘어난다.  
시는 연말까지 개원을 목표로 각종 사업과 예산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보육은 부모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면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이 지난 11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 전국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섰고 지난 5월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원 이내 화순 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급의 역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고창농악보존회, 인문학콘서트 '잡색' 16일 개최

전북(사)고창농악보존회는 16일 인문학콘서트 '잡색'을 개최한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콘서트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농악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인문학콘서트는 농악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지난 해 전라도의 팽과라·소고, 고창의 대보름굿·풍장굿을 주제로 공연이 펼쳐졌다.

올해는 농악에서 악기치매 외에 가장(假物)을 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일컫는 잡색을 중심으로 한 고창농악을 풀이한다.  
콘서트에서는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가 '탈춤과 농악 그리고 잡색놀이'와 남기성 연출가가 '가면과 잡색, 고창농악 도둑잡이굿의 해석'을 강연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